

“광주를 인문학 도시로 만들자”



시민이 주도하는 광주시민자유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박주용(오른쪽 두번째) 전남대 철학과 교수와 시민자유대학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1일 캠퍼스로 쓰일 광산구 장덕동 근대학옥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교수·예술인 9명
2억7000만원 조성
철학·건축·미술 등
시민 운영 자유대학
9월부터 시범 운영**

“광주를 시민대학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만들어 가는 시민대학이 광주에 설립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등의 예산 지원을 받은 인문학 강좌는 많았지만 시민이 직접 돈을 모아 운영하는 인문학 대학은 흔치 않다. 특히 주도적으로 참여한 교수와 예술인 등 9명이 각 300만원씩 기증해 2억7000만원의 기금을 만들었고, 뜻을 함께한 30여명의 시민들도 각 300만원씩 운영비를 보태는 등 자발적인 시민 참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 스스로 만들고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생기는 셈이다. 광주시 지역 교수와 예술인 등이 주축이 된 시민자유대학추진위원회는 22일 “최근 광주시민자유대학의 창립총회를 갖고 오는 9월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시민자유대학은 광산구 장덕동 ‘장덕동 가족’(광주시 등록문화재 146호)에 1캠퍼스를 마련하고, 내년에 학위 과정을 개설한다. 정규 과정은 아니지만 철학과 예술, 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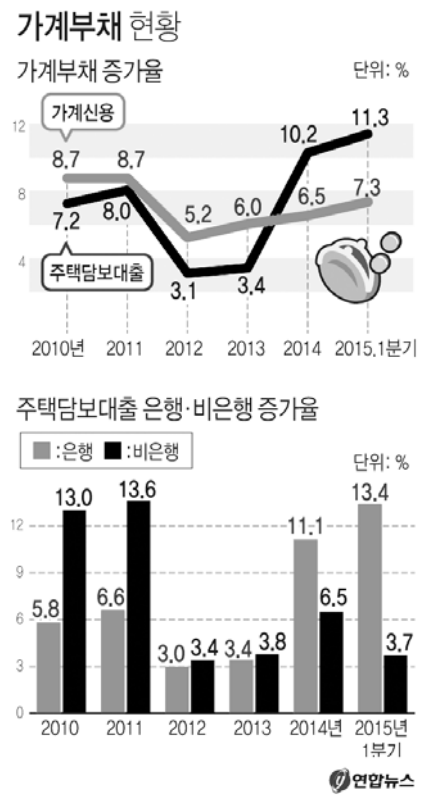
전문 강좌를 시민과 함께 운영하게 된다. 특히 대부분 국내 인문학 강좌들이 예산 지원이 끊기거나 돈나면 명맥이 끊기곤 했는데, 이 대학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또 장덕동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캠퍼스를 늘려 광주 곳곳에서 시민대학을 진행, 광주 전체를 시민대학으로 채운다는 장기 계획도 세웠다. 시민자유대학 설립에 참여하고 있는 전남대 철학과 박주용 교수는 “철학을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연습을 하고, 삶 속에서 예술의 힘을 기르는 등 다차원적인 담론을 형성하는 교육 기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용 교수를 비롯해 동강대 김용근 교수, 전남대 철학연구소장 유근성 연구원, 전남대 미술학과 서기훈 교수, 전남대 건축학과 이호원 교수, 지평중학교 이우미 교사, 전남대 회신병원 신재현 간호과장 등 30여 명의 학계와 예술계, 교사 등 9명이 선뜻 3000만원씩 기금을 내놨다.

또 단순한 지식 전달 교육에서 벗어나 시민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민대학학교’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어 준다.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철학교실, 아름다운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 ▲건축교실, 은신처와 부동산을 넘어 삶의 터전으로 ▲불교는 철학인가 종교인가 ▲현대물리학으로 세상 읽기 ▲미술교실, 빛에서 색으로 ▲인문학을 위한 음악이란 ▲내 몸을 살리는 자연음식 등 다채롭다. 독일 카셀대 김덕영 교수의 집중 교육도 눈길을 끈다. 김 교수는 1박 2일 동안 하루 6시간씩 총 12시간 동안 사회학의 모든 것을 들려주는 ‘마라톤 강좌’를 하게 된다. 또 대부분 철학 강의는 철학 연구원들이 수강생들과 어울려서 자유 토론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시민자유대학추진위원회는 300만원의 운영비를 내는 후원회원 100명을 모집중이며, 모든 강좌의 수강료는 18만원이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내년부터 은행 대출 까다로워진다

담보위주 심사 방식서 탈피 소득 기반 상환능력 평가로

내년부터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또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사람은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때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금융정책 당국은 22일 총 1100조원대로 불어난 가계 빚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관리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담보 위주로 진행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소득에 기반을 둔 상환능력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신규 주택대출 한도를 선정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신고소득 자료는 그대로 참고하지 않게 된다. 그 대신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처럼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인증하는 소득증빙 자료가 중요한 심사자료로 활용된다. 신고소득을 활용할 경우에는 은행 내부 심사 책임자를 영업 접장에서 본부장으로 높이고 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신고소득 심사를 까다롭게 만들면 상환능력 범위의 대출이 이뤄지고 자연스럽게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에 근접한 경우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기존 대출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하면 LTV·DTI 재산정 절차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분할상환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금융진흥원보증금의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안정적으로 평가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는 최저요율(0.05%)을 적용하고,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에는 최고요율(0.30%)을 부과해 금융기관들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을 많이 취급하도록 유도를 방침이다. 주택담보 대출에서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는 내용은 담은 은행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 또는 위험성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대출을 내줄 때 거처 기간 1년 이내로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 말 기준 분할상환 대출 점유율 목표치를 45%, 고정금리 상품 점유율 목표치를 40%로 각각 제시했다. /연합뉴스

광주 총장로센터, 헌혈자수 ‘전국 2위’

상반기 2만86명... 대구 동성로센터 1위 ‘1만7774명’ 전남대 용봉센터는 4위

대한적십자사(한적) 혈액관리본부는 22일 전국 139개 헌혈의 집 가운데 대구 동성로센터의 헌혈자 수가 단연 으뜸이라고 밝혔다. 대구 동성로센터는 올해 들어 6개월간 2만805명이 헌혈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난 3년간도 출근 1위를 놓치지 않았다. 2014년 4만2368명, 2013년 4만2819명, 2012년 4만3642명이 각각 헌

혈해 2위 센터와는 9651명, 9294명, 6894명이 차이가 났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헌혈자 수는 대구 동성로센터에 이어 광주 총장로센터(2만86명), 인천 부평센터(1만9761명), 전남대 용봉센터(1만7774명), 서울 노원센터(1만5652명), 대전 은성언어센터(1만5562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또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지역센터(1만5078명), 경기 의정부센터(1만4673명), 대전 둔산센터(1만4667명), 경남 창원센터(1만4537명)가 7~10위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서울대학교센터는 2012년 1189명, 2013년

1239명, 2014년 1279명, 2015년(1~6월) 1269명 4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렀다. 서울대센터의 헌혈자 수는 1278명에서 2665명 사이에 그쳤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센터는 2012년 879명, 2013년 959명, 2014년 1049명, 2015년(1~6월) 1119명을 각각 기록하는 등 계속 순위가 떨어졌다. 헌혈자 수도 2012년 7385명, 2013년 7175명, 2014년 6534명, 2015년(1~6월) 2880명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김형성 혈액관리본부 헌혈자네티프 과장은 “10~20대가 전체 헌혈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등 헌혈 계층이 심하게 편중돼 있다”면서 “30~40대 직장인도 헌혈에 많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소방안전교부세’ 광주 184억·전남 191억 배분

담뱃세로 조성...장비 교체 등에 사용

담뱃세 인상으로 조성된 소방안전교부세가 전국 17개 시·도에 지급됐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 총 3141억 원의 소방안전교부세를 배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184억 원을, 전남도는 191억 원을 각각 배분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국 특별·광역시 평균 배분액은 170억 원, 도 평균 배분액은 198억 원이다. /박기용기자 pboxer@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로 조성, 소방·안전분야 중점사업과 재량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소방분야 중점사업은 소방차량·개인안전장비·통신장비 교체 등으로, 안전분야 중점사업은 도로·하천·공유림 등 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 개선 사업 등이다.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금액은 시·도 소방본부의 장비 교체 수요를 포함해 지방도로·하천·공유림 분포 등을 반영했으며, 소방·안전 투자 소요(40%), 자치단체의 재난안전 투자노력(40%), 재정자주도(20%)에 따라 정해졌다. /박기용기자 pboxer@

신안 복합리조트 사업부지 매각 공고

1 개요
 ① 매각대상지(이하 '각 매각대상지')
 가 전남남도 신안군 안남면 구대리 265-2 외 79필지 2,942,598.3㎡(이하 '면적지')
 나 전남남도 신안군 비금면 수리리 844-2 외 5필지 364,977.8㎡(이하 '상수도지')
 다 전남남도 신안군 현곡리 신289-1 외 12필지 814,160.0㎡(이하 '상수도지')
 라 전남남도 신안군 비금면 신안리 신1 외 394필지 1,527,785.5㎡(이하 '구형지')

2 매각대상지
 공적청정지역을 통한 각 매각대상지 별 매각(가/나/라/리)은 세무 부실매각 단위 별 매각
3 기안요율
 가 매각대상지 중 (라)기타지역은 67개의 세무 부실매각단위 별로 매각을 예정하며, 각 매각대상지 별 매각 단위 내역은 매각신청서 제출시 기재 가능하며, 세무부실매각에 상시 처치 할 예정임
 나 면적지인 경우에도 취재매각계약 이행을 전액 인수해 매각할 경우, 낙찰자로 선정할 예정이며, 취재매각계약 이행을 전액 인수할 경우에도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예정임. 단, 낙찰자는 각 매각대상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법인'이라 함)이어야 하며, 취재매각 계약 체결 예정임. 단, 낙찰자가 인체는 각 매각대상지인 매각계약 후 잔금지급일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다 입찰서 접수(입찰보증금)의 5%인 편액(이하 '입찰보증금 차감확인서'·낙찰료 상환금 후 계약)을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입찰보증금 미납 시 계약 체결 후 계약
 라 본 매각에서는 입찰보증금 상환을 전제로 한다

4 매각 진행 절차
 ① 입찰 일정
 가 입찰 일: 2015년 8월 6일(월) 10시 ~ 16시(이하 대한민국표준시)
 나 입찰장소: 지역 공공기관(예: KOSIS 우편배달국 등)
 다 입찰금: '신안 복합리조트 사업부지 매각'은 입찰금 10%로 현금으로 납입 가능한데, 입찰금 10%는 계약금으로 납입하고, 잔금 90%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입찰금 납입 후 계약 체결 시 계약금 10%를 차감한다.
 라 낙찰자 선정 후 상환하는 내용은 재무자문사를 통해 개별 문의 예정임
 마 입찰 일정은 본 공고에 명시된 사항과 다를 수 있음

5 소유권 이전
 가 입찰을 기준으로 각 매각대상지에 대한 제반권(가/세/보, 가/담/담, 소송, 임대차, 유치권, 세습 등)은 민사상권, 제반권, 미납 부당금/세금, 가/보 등은 매수자가 인지하고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하며, 이를 이유로 낙찰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나 입찰금부터 소유권이전일까지 각 매각대상지에 대한 제반권(가/세/보 등)을 소유권이전일까지 계약하는 계약이 추가로 성립한 경우에는 매도인 책임으로 정리하며, 미정리로 소유권이전 불가능할 경우 낙찰을 취소하고, 매도인은 기납부된 대금에 이자 없이 환급받을 예정이며, 이 경우 낙찰자는 입찰의 의무를 지게 된다
 다 매수자는 매각계약 체결 이후 60일 이내(이하 '계약이행기간')에 대상물인 경우에는 계약이행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 시 '공' 신청서에 매수자(계약인)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라 매각계약에 따른 매수자책임 비용 및 세금계산서 비용 등은 소유권 이전 절차에 관한 일체의 비용과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함
 마 입찰서 및 자산조사서류의 기재사항은 동일하며, 변경이 불가능함
 바 낙찰자 선정 후 매도인 측 감정평가금액 비율에 따라 낙찰금액을 반환하여 일체 별 매각계약금 상환

2015년 7월 23일
재무자문사 삼일회계법인

이형만영광군항우장학회 장학생 모집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항우장학재단은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항우회원 자녀 중에서 애함성이 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기금이 떨어지고 생활이 곤란한 경우 지원이 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I. 지원 자격 및 선발 인원
◆ 지원 자격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항우회 회원 자녀 중, 중·고·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2014년 8.1학년 주민등록이 영광군이나 광주광역시에 둔 학생
◆ 선발예정인원 : 총 22명 중 광주지역 10명, 영광지역 12명
 (중학생 0명, 고학생 0명, 대학생 0명)

II. 선발 방법 및 구비 서류
◆ 선발 방법
 -영광군민의 자녀 중 영광군수가 추천한 재광영광군 추천장식에 의한 영광군민 9명
 -재광영광군항우 자녀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여 임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 확정된 자
◆ 구비 서류(재광영광군항우 자녀)
 -장학금 신청서 1부 -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 추천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불강 사본(본인명의로 한함)
 -성적우수자는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가능보유자나 생활학생은 증명할만한 자료 사본
◆ 구비서류 양식은 이형만영광군항우장학회 카페 /http://cafe.daum.net/fmygg 참고

III. 선발 일정
 -서류접수: 2015년 7월 6일(월) ~ 7.31(금)
 -최종 합격 안내: 2015년 8월 셋째 주(개별 통지)
 -장학금 지급 및 중식 수여: 영광군민 자녀-영광군민의 날(8월 예정)
 재광영광군 자녀-재광영광군항우회 송년 행사 (12월 예정)

IV. 신청 방법
 -우편·방문 접수
 -신청 및 문의처: (502-882)광주광역시 서구 유림로 100 (동천동 해천빌딩 7층)
 -전화: (062)522-8422
 사무국장 임재성: 010-8667-6143

V. 유의사항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됨.
 -관련서류의 제출은 영광군민의 자녀는 영광군청으로, 재광영광군항우자녀는 이형만영광군항우장학회의 사무국으로 제출

사설 개 필 Tel: 061-242-4900

교수 초빙

글로벌 세상을 선도하는 동강대학교에서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교원을 초빙합니다.

초빙분야 및 인원

제출구분	학과	인원	전공분야	비고
전임교원	간호학과 0명	0명	-간호학	-박사학위 소지자 -임상(중환) 또는 전공관련기관 근무경력 3년 이상인자 -시물레이션 강의 경험자 우대

접수기간 2015. 07. 29(수) ~ 07. 30(목) 15:00까지
접수처 우리대학교 사무처 행정지원팀 ☎(062)520-2211~2
세부사항 우리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kc.ac.kr) 교수초빙 공고 참조

동강대학교
 (500-714)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